

아상블라주 풍경

정현

"나는 1961년 12월 말에 자카르타에 갔다가 1964년 4월에 떠났다. 밤중에 공항에 내렸는데, 우기가 시작된 뒤였다. 그 날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택시에 유리창이 열려 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제일 먼저 느낀 건 냄새였다. 싱싱한 나무와 관목들, 소변, 흐려진 향, 쓰레기, 그리고 대로변에 늘어선 작은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대단했다."

- 베네딕트 앤더슨

김찬훈의 "닳은 풍경" 시리즈(2019~2020)는 마치 화가가 사생을 하듯 경산이라는 장소를 살살이 살핀 과정의 결과물이다. 탐색의 시작은 서울 토박이인 작가가 경산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경산은 대구광역시의 위성도시로 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후 대구에 위치한 대학들이 속속히 캠퍼스를 이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였고,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현재까지 13개의 대학이 운집하고 있으니 교육도시라는 수식이 틀린 말도 아니다. 여기에다가 섬유,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3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니, 실상 이곳은 대구의 일부라 불러도 될 만큼 다양한 산업적 기반을 가진 도시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도시 청년 김찬훈은 입학하자마자 갑작스레 도시와 시골 사이 어디쯤에 위치한 '비 장소'의 경산에 도착한다. 그가 목격한 것은 표준화된 도시를 위한 기성품을 무질서하게 세워놓은 모습이었다. 익숙한 듯 그렇지 않은 이 도시의 정경에서 도시 청년은 정체가 모호한 건축물을 발견한다. 문맥에 맞지 않게 위치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덧대다 보니 초현실적인 형태가 되어버린 이름 모를 풍경은 세월을 정면으로 맞은 듯 닳고 닳은 상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닳은 풍경"은 잘 알려진 경산의 모습이 아닌 장소의 문맥에서 어긋난, 말 그대로 탈구된 상태의 한국의 수많은 도시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어딘지 모르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낯선 장면을 연상시킨다.

"닳은 풍경"은 밀레니얼 세대 작가인 김찬훈이 대학 도시 경산에서 발견한 비시간적인 존재를 촬영한 사진 연작의 표제이다. 시작은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막연하게 상상한 시골의 삶과 달리 무분별하게 개발된 어정쩡한 상태의 경산에서 발견한 경산의 실제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이주한 대학생들은 지리적 장소와는 무관하게 마치 평행 세계처럼 분리된 현실을 목격한다. 작가는 수많은 한국의 주변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필요로 제작된 가면을 쓴 영혼 없는 건물들로 채워진 경산에서 어쩌면 정동(affects)을 일으키는 대상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나에게 닳은 풍경은 대구의 위성 도시 또는 교육 도시라는 수식어와 무관한 경산의 숨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사진의 피사체가 된 대상들은 역사적 시간 축 바깥에 위치한 이름 없는 사물들이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이 건물들은 적어도 김찬훈의 사진 안에서는 역사적 서사에 저항하는 반기념비처럼 등장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포착한 것은 그저 이상하고 낯선 건물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의 탐색 과정에서 작가의 시선에 의해 발굴된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조각들(fragments)로, 닳은 풍경 연작은 사진을 통하여 어떻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한 작업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현재에 잔존하는 과거의 흔적을 소비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뉴트로 경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찬훈은 과거의 향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 지역 특유의 도시화 과정이 빚은 마을의 모습, 특히 건축물의 유형학을 통하여 그 궤적을 추적하고 있기에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사실 김찬훈이 포착한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버내쿨러 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이라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버내쿨러는 모더니즘의 표준의 대구인 일종의 사투리와 같은 지역색을 품은 건축 양식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가 지은 건축물이 아닌 장인 또는 아마추어가 자신의 편리에 맞도록 제작한 건축물을 일컫는다. 따라서 작가는 버내쿨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인류학적 지형도를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그의 사진이 인류학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인류학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작가가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지역색을 품은 건축 양식이 아니라 급진적인 도시화의 성숙기에 도달한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생존의 흔적'을 통해 신자유주의 사회가 빚어낸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발견하는 데 있다(닳은 풍경, 용성을 당리리, 2020). 한국의 도시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났다. 땅을 다지고 체계를 갖춘 도시개발은 근래에나 가능해졌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근대화 과정은 잦은 부침으로 시간의 축이 어긋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버내쿨러 건축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주요한 기표이기도 하다. "닳은 풍경"은 유형학적 사진의 계보를 따르면서 피사체의 주변부를 함께 포착함으로써 탈문맥적 상황, 다시 말해 초현실주의적 현실을 부각시킨다. 흡사 영화관 입구 또는 모텔 주차장처럼 보이는 구조물에

검정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집 안 마당인지, 공유지인지도 파악할 수 없는 곳에 세워진 이 구조물 옆에는 양증맞은 장독들이 놓여 있다. 짐작컨대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의 입구라도 숨어 있을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정 그림자가 인상적이다(닳은 풍경, 진량을 신상리, 2019). 도무지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난해한 상황은 논리의 부재 상태에 있는 무질서한 삶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논리의 부재는 내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늘 외부의 개입으로 비롯된다. 마치 유럽의 성처럼 세워진 적벽돌 건물 뒤편에 위치한 슬레이트 지붕의 축사로 보이는 건물 사이의 대비는 얼마나 도시화가 신속하게 행해졌는지를 상상하게 만든다(닳은 풍경, 진량을 부리기, 2019).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급진적 도시화의 목적은 더 나은 삶이란 표면적 허울일 뿐이었을까? 실상 적벽돌 건물은 실재를 은폐하기 위한 가림막에 더 가까워 보인다. 사진 속 장면을 하나의 사회문화적 증상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 적벽돌 건물은 안락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감춘 사건의 배경이란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김찬훈은 버내쿨러 건축을 통해 도시화 이전과 이후 사이의 시차로 발생한 일종의 오류의 현장을 포착함으로써 도시가 처한 현재형의 시간을 추출하는 중이다. 현대 도시는 역사로 대변되는 과거의 기억과 발전을 추구하는 기획된 미래 사이에서 배회하고 있다. 작가가 추출한 현재형의 시간은 벤야민이 말하는 '지금 여기'를 지각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닳은 풍경"은 변곡점을 맞이한다. 그가 직조된 도시의 틈새에서 논리에 어긋난 다다적인 아상블라주를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는 아상블라주의 미학적 측면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시멘트 칠이 된 담벼락이 즐비한 골목에 우뚝 세워진 간이 건물이 있다. 지붕 위에 간 이 건물을 덧대어 만든 이 건물은 지붕을 기준으로 위에는 경량 구조의 식재로 지어진 빛바랜 녹색 컨테이너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푸른색 합석 구조물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알루미늄 새시 창으로 이뤄진 또 다른 구조물이 덧붙여져 있다. 수직과 수평의 선들이 불규칙한 운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다(닳은 풍경, 하양을 대학로, 2019). 또 다른 사진 "닳은 풍경, 진량을 상림리, 2019"에서는 아치형 구조물에 덧씌워진 비닐막 아래에 검정으로 채색된 목재 대문이 있고, 그 오른편 건물의 층계 단면과의 조합은 기하학적 구조물이 버내쿨러 건축으로 이뤄진 아상블라주 미학의 절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닳은 풍경 시리즈는 도시의 형성 과정을 파헤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역사와 정책으로 빚어진 표준 시간에서 어긋난 대상들을 미학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장소를 피사체로 기록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장소의 기록을 넘어서 스스로 발화하는 풍경으로 변환하려는 미학적 시도야말로 닳은 풍경 연작의 숨은 뜻이다.

Assemblage Scenery

Jung Hyun

“I arrived in Jakarta late in December 1961 and stayed till April 1964. When my plane landed, in the dark, the rainy season had begun, and I remember vividly the ride in town with all the taxi’s windows open. The first thing that hit me was the smell – of fresh trees and bushes, urine, incense, smoky oil lamps, garbage and, above all, food in the little stalls that lined most of the main streets. – Benedict Anderson

“Worn Away Scenery” Series (2019~2020) by Chanhoo Kim is a result of his examining at every inch of the place, Gyeongsan as if a painter sketching from nature. The exploration began as the photographer, a Seoul native, entered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sa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Gyeongsan in the name of the satellite city of Daegu Metropolitan in the 80s, campuses in Daegu were successively relocated to here; the city constructed the identity of education city officially since the ‘90s. Considering there are currently thirteen universities, it is not wrong for it to be referred to as an education city. On top of that—in that there are three general industrial complexes which produce textiles, machinery metals, automobile components, etc—it seems, in fact, rather closer to a diverse industrial-based city, only judging by this exterior profile enough to be part of Daegu. However, Chanhoo Kim, a young man from the city, upon entering his school, suddenly arrives in Gyeongsan of ‘Non-Place’, which is located somewhere between city and countryside. What he witnessed there was a disordered array of ready-made goods designed for a standardized city. In the scene of the city looking familiar but also not, this young man discovers unidentified architecture. These unknown sceneries—which were placed out of context or patched over as a makeshift, thereby

“Worn Away Scenery” is the title to a series of photographs by a Millennial photographer Chanhon Kim—which captured anachronic existence that he found in a university town Gyeongsan. Quoting from the photographer, it started off with the actual appearance of Gyeongsan—that he found in its unsettled state due to indiscriminately development—which was far from the country life he had vaguely imagined. Lots of university students—who immigrated from all around the country—witness a separated reality like a parallel world, irrelevant to the geographical place. It could be said that the photographer has found objects that evoke ‘affects’ in Gyeongsan—where it is occupied with soulless buildings under a mask made for functional purposes, just like other loads of peripheries in South Korea. At least to me, “Worn Away Scenery” advanced towards me as an undisclosed facial expression of Gyeongsan—unrelated to its byname satellite city or education city. Those objects—which became subjects of the photographs—are nameless things located outside the axis of historical time. These buildings—despite the unknowns to when, how, or by whom they were built—at least in Chanhon Kim’s photographs—emerge like an anti-monument that resists historical narratives. That is to say, what the photographer grasped is not a merely weird and unfamiliar appearance of the building. Rather, that is fragments of unwritten history that were excavated by his gaze during his exploration of the area. Therefore, “Worn Away Scenery” could be seen as an attempt for measuring the possibility of going back in time through photographs. Of course, I cannot say it does not align with the Newtro trend that Millennials consume remaining traces of the past. Nevertheless, Chanhon Kim stays clearly distinct because he is not up to consuming nostalgia from the past, but up to chasing down the track of the past—through the appearances of the town that were sculpted by the process of Gyeongsan’s endemic urbanization, the typology of architecture in particular.

In fact, the structure captured by ChanHoon Kim basically belongs to a type of vernacular architecture. Vernacular means an architectural style that embodies local color like a sort of dialect which is the antithesis of the standard of modernism. In addition, it refers to building done by craftsmen or amateurs for their own convenience, not by professionals. Therefore,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photographer has drawn a cultural anthropological

topographical map mainly around the vernacular building. However, this is not implying that his photographs are findings of anthropological research. Despite containing certain anthropological elements, what he discovered during the process is not simply an architectural style that reflects local color, but is rather—via 'trace of survival' that still remains up to the present when the radical urbanization has become mature—the invisible boundary inscribed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by the neoliberal society. (Worn Away Scenery, Yongseong-eup, Dangni-ri, 2020). Urbanization in South Korea progressed radically.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urban development with earthworks and a system became possible.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hich dates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carried out with the axis of time dislocated, due to frequent fortunes; vernacular architecture is also a notable signifier that represents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Korea as it is. “Worn Away Scenery”—in accordance with the genealogy of typological photography—is capturing the periphery of the subject together, thus illuminating the decontextualized situation, surrealistic reality in other words. A black curtain is draping over a structure that looks like a motel parking lot or an entrance to a cinema. Dainty jars are lying right aside to the building, leaving us an unanswerable question if this is a courtyard of a house or common land. Presumably taken as a parking lot, it has an impressive black shadow, having unknown depth as if hiding an entrance that leads to another dimension. (Worn Away Scenery, Jinnyang-eup, Sinsang-ri, 2019). This cryptic situation—unidentifiable one way or another—reminds us of a chaotic life in the absence of logic. Now that I think of it, the absence of logic always derives from outside intervention, not from problems within. The contrast—between the red brick building like a European castle and a structure behind like a barn with a slate roof upon it—leads us to imagine how rapidly the urbanization was carried out (Worn Away Scenery, Jinnyang-eup, Bugi-ri, 2019). What did happen indeed? Was the purpose of this radical urbanization just a superficial façade of a better life? As a matter of fact, the red brick building looks more like a blind for covering up the reality. What if we regard the scenery in the photograph as a socio-cultural symptom?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e red brick building being as a backdrop of an incident with some truth concealed behind, not as a comfortable living space. By tapping into the vernacular architecture, ChanHoon Kim is capturing some sort of site of an error created by the time

difference between pre-and post-urbanization, subsequently rendering the present-tense time at which the city has come to face. The modern city is wandering about between the memories of the past represented for history and the future planned out in pursuit of development. The present-tense time—extracted in the hands of the photographer—shall be a way of perceiving 'Here and now' addressed by Walter Benjamin.

From here, “Worn Away Scenery” faces an inflection point. Supposing that he discovered Dada Assemblage that goes against logic in the crack of the woven city, it is now sure to look into the aesthetic aspect of Assemblage. By the alley lined with cement-painted walls, we see a makeshift structure that stands tall. Based on the roof onto which the makeshift structure was added, above is a faded jade container of a lightweight structure, and below is a blue tin structure, and down there is accompanied with another structure of aluminum sash windows. This is a scenery where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are creating an irregular rhyme (Worn Away Scenery, Hayang-eup, Daehak-ro, 2019). In another photograph (Worn Away Scenery, Jinnyang-eup, Sangnim-ri, 2019), there is a black-painted wooden gate below a layer of plastic film onto the arch structure; its combination with the side view of the stairs on the right building is presenting a climax to the art of Assemblage composed with vernacular architecture. Therefore, Worn Away Scenery series can be appreciated as an attempt, whilst mining up the process of city formation, to turn deviated objects—from the standard time zone set by history and policies—into the aesthetic dimension. Above all things, the very undertone of Worn Away Scenery series is—without settling for documenting place as a subject—an aesthetic venture of converting place to the scenery that speaks up on its own, more than a record of a place.

Jung Hyun